




청량청량, 갯길



군산에
변화와 희망이 찰랑입니다.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정책,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의 성장,
그리고 군산만의 따뜻한 이야기가

행복의 파동이 되어
더 나은 내일로 번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찰랑이는 군산의 물결을 만나보세요



2025년 7월호

Contents

04	기 획	민선 8기 3주년 성과
06	군산은 지금	현장을 가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08	군산의 섬(島)	섬과 섬을 이어주는 섬, 명도
10	군산의 인(人)	이재하 러닝 코치 군산 명장 : 박해영
13	군산의 미(味)	여름을 맛보다, 여름철 식재료 : 꽃새우
14	군산의 사(史)	군산 객주
16	군산의 가(街)	군산 비어포트
18	오늘 어디갈까?	찜통 더위도 걱정없는 군산 실내 여행지
20	생활정보특독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솟품 등 소개
21	시민리포터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리포터
22	도서관 소식	무더운 여름을 극복할 시원한 책 한 권!
23	이달의 건강 소식	여름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수칙
24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5	문화산책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이 영웅 -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26	의정	의회 주요 소식
28	시정알림	시정소식 및 알림
30	문화공연	문화공연 소개 등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 07. 제339호 발행일 2025.6.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미디어홍보계장 김현정, 주무관 김미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3년의 발걸음,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간 변화의 기록



‘키움 으뜸 가족 행복 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온 민선 8기,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 늘 한결같이 자리한 이름,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군산시의 모든 정책은 한 방향을 향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먼저.”

생활 곳곳의 안전망부터 감염병과 자연재해까지, 군산은 전례 없는 폭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말하겠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도시, 당신의 하루가 든든한 군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화폐 모델, 군산사랑상품권 누적 유통액 3조원 돌파

- 군산사랑상품권 캐시백 도입
- 누적 유통액 3조원 돌파, 지역경제 모세혈관 역할



새만금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 실시간 고도분석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업 지원
- 이차전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기업지원 핵심 거점으로 성장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및 운영

- 호남권 최초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 국제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

-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비전 실현
-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군산권역 의료공백 해소로 시민 숙원사업 해결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체계의 선제적 구축
-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집적화 단지 조성

- 미래 바이오 양식 시스템 토대 마련
- 군산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고양 및 지역 어업인과 상생



군산맥아수제맥주 산업화 및 도시브랜드 육성

- '군산맥아'를 활용한 일괄 생산 판매 체계
- 지역농업, 청년창업, 도시재생이 상생하는 흐름 조성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 문화에 관광을 입힌 군산만의 융복합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통합 운영
- 광역 통합 항만도시 및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도약



고군산군도 한가운데, 워터파크가 들어선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올해 하반기 완공
내년 본격 운영예정



내년에는 군산의 섬에서 짜릿한 해양레저를 즐겨보자!

군산시 무녀도 일원에 조성 중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올해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서해안 지역에 체계적인 해양레저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42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비 193억 원, 도비 55억 원, 시비 17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군산이 지닌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레저 및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다채로운 해양레저와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총 64,365㎡ 규모의 대형 단지에는 ▲서핑과 잠수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오션에비뉴’, ▲샤워실과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션테라스’, ▲몽돌해변 전망을 즐기며 수영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최대 3m 높이의 인공 파도를 자랑하는 ‘파도풀’, ▲카누·카약 체험이 가능한 ‘레저레이크’, ▲산림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숲속 캠핑장’ 등이 조성된다.

이처럼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고군산군도만의 자연미를 살리면서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문화체험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봄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그동안 해양레저 수요는 증가해 왔으나 서해안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복합단지 조성으로 군산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계절적 제약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제약이 컸던 군산이, 이 복합단지를 통해 서해안권 대표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관광성이 자리한 군산! 이곳에서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잔잔한 누면 위로 카누를 타고, 인공 파도풀에서 시원한 물살에 몸을 맡기며 가슴 뛰는 해양 액티비티를 만끽 해보자



섬과 섬을 이어주는 섬

K-관광섬 명도

수십 개의 섬이 군락을 이룬 고군산군도 중 말도-명도-방축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K-관광섬은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여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특화하는 사업이지요. K-관광섬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군산 섬의 매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산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중 섬과 섬을 이어주는 섬, 명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명도 이야기

군산의 아름다운 섬, 명도는 방축도와 말도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섬이에요. 면적은 0.363km², 해안선 길이는 3.5km로, 장차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명도(明島)'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섬의 모양이 마치 해와 달이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섬 가운데 바닷물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밝은 명'자를 써서 '밝은 섬', 명도라 불리게 되었대요. 이 섬은 다양한 약초가 자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약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해풍을 맞고 자란 방풍 약초는 명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 명도 주요 볼거리

명도의 최고봉은 해발 108m로, 섬을 중심으로 펼쳐진 기묘한 바위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간조 때면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이 열리는 오누이 바닷길이 장관을 이루고, 섬 서쪽 끝에 자리한 바람의 언덕에서는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 중 구렁이 전설 전망대, 오진여 체험 경관 전망대, 얼룩말 바위 등이 대표 명소로 꼽힙니다.

구렁이 전설 전망대

마을을 지나 산길 중턱에 있는 삼거리 표지판을 따라 북서쪽 산길을 걷다 보면, 명도 서쪽 봉우리(92m)에 도착하게 돼요. 이곳에는 파리를 튼 구렁이 모양을 닮은 구렁이 전설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죠. 전망대에서 서면 맞은편에 있는 무인도 보농도와 말도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명도에서 보농도, 보농도에서 말도를 잇는 인도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머지않아 걸어서 말도까지 갈 수 있답니다.



구렁이 전설 전망대

오진여 체험 경관 전망대

마을을 지나 산길 중턱 삼거리에서 이번엔 북동쪽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와요. 여기서 우측 길로 향하면, 명도 북동쪽 끝에 있는 오진여 전망대에 닿게 됩니다. 이곳은 데크가 넓게 설치된 경관 전망대로, 간조 시엔 맞은편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데크 앞바다는 평소 가마우지들의 쉼터인데요, 이들의 배설물로 인해 하얀 빛깔을 띠는 바위섬 오진여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에요.

간조 때는 직접 바다에 내려가 해삼, 낙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체험 활동도 가능하고요, 전망대 주변에는 보랏빛 엉겅퀴 군락이 넓게 퍼져 있어 자연 속 힐링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진여 체험 경관 전망대

얼룩말 바위

명도 남쪽 해안으로 가면 아주 특별한 암석을 만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얼룩말 무늬처럼 보이는 이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이런 독특한 무늬는 아주 먼 옛날에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를 때, 밝은 색의 산성 마그마와 어두운 색의 염기성 마그마가 서로 섞이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9억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이 신비로운 흔적은 지금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얼룩말 바위

명도는 군산 앞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섬이에요.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걷고, 쉬고, 체험하며 자연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명도로 떠나볼까요?



함께 뛰며, 함께 웃는 도시, 군산

전북 최초 육상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재하 러닝 코치를 만나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군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금강하구둑을 따라, 러너들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가볍게 바닥을 치는 러닝화의 박자, 서로를 격려하는 호흡소리... 전국적인 러닝 열풍 속에서, 군산은 '함께 달리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의 한 가운데 군산 러너들의 페이스메이커를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달리는 시간,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지금은 러닝을 통해 ‘함께 뛰는 삶’을 나누고 있는 이재하 코치의 말입니다. 그는 현재는 전북권에서 유일한 러닝 전문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의 러너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태어나 서천에서 선수 활동을 한 그가 군산에서 등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매력에 끌려 군산에 살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곳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 군산의 인(人)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군산은 저를 다시 숨쉬게 해준 도시예요”

이재하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육상을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13년간 단거리 선수로 활동했고, 2017년 아시안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속도보다 사람과 호흡하는 러닝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 현재 전북권 유일의 러닝 전문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며, 군산 러너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출생지는 경북, 선수 생활은 주로 서천에서 보냈지만, 군산에서 삶의

두 번째 챕터를 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선수 시절, 군산에 자주 들렸어요. 가까운 거리기도 했고, 즐기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맛집과 명소가 많은 군산에 자주 오다 보니 이 도시가 좋아졌고, 결국 결혼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북에는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줄 코치가 드물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서울이나 대전까지 배우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군산에서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러너에게 열린 도시, 군산입니다”

이재하 코치는 말합니다. 평지와 경사진 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군산은 정말 달리기 좋은 도시라고. 초보자라면 월명공원이나 은파호수공원을, 조금 익숙해지면 금강하구둑, 동백대교, 새만금방조제길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군산대 캠퍼스에는 저녁 7시만 되면 러닝크루들이 모여들어요. 리듬에 맞춘 구령이 울려 퍼지고, 발소리가 어둠을 뚫죠.” 러너가 늘어난 만큼, 월명경기장 트랙도 군산대처럼 저녁에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 러너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합니다.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군산 시민들의 자부심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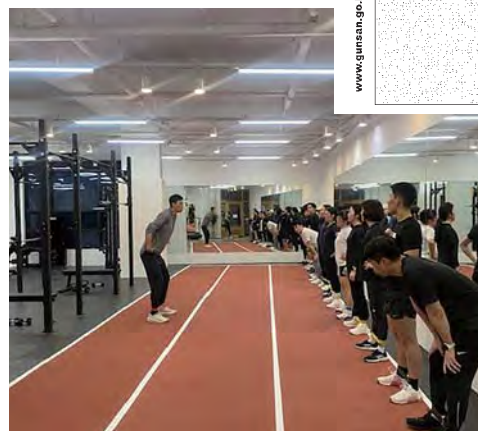
그는 군산에서 메이저급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과 일반인이 함께 뛰는 마라톤은 많지 않아요. 특히 올해는 월명터널을 지나는 코스가 인상 깊었어요. 속도를 조절하기에 딱 좋고, 코스 경사와 풍경이 환상적이었죠.” 동아, 춘천, 대구 마라톤 대회와 어깨를 겨루는 국내 4대 메이저 마라톤 중에 하나 인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특히, 경사가 적절하고 코스 구성이 잘 짜여 있어 일반인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대회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러닝 열풍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장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 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여럿이서 뛸 때는,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연대를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00m 선수였던 그가 처음으로 장거리를 달렸을 때의 깨침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리지만, 마라톤은 달리면서 실수를 채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고 하네요.

“군산에서, 함께 뛰고 함께 웃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재하 코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록 경쟁이 아닌, 연대와 응원의 러닝문화를 만드는 것. “군산은 인프라는 좋은데 아직 달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뛰고, 누구와도 함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기록 경쟁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달린 시간’을 기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러너들을 위한 네트워크 안에서 웃고, 숨차고, 또 서로를 응원하는 순간들이 이 도시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꿔주리라 믿는다고 합니다.



‘함께 달린 그 순간, 인생도 달라진다’고 말하는 이재하 코치. 그가 달리는 이유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군산이라는 도시가 새롭게 뛰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일하고 물 위에서 통통합니다”

박해영 잠수명장



20대 시절 멋진 해군 세일러복에 마음을 뺏겨 해군에 입대한 후 시작된 40여 년의 잠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 수색구조 활동과 수중구조 정화 활동 등 기술이 필요한 곳 어디든 바다로 몸을 내던지는 박해영 잠수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잠수를 처음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A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UDT를 자원해서 특수전 훈련을 마치고 전역 후 해저의 신비와 우주인처럼 수중 세계를 즐기고 싶어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양개발이 부진한 실정으로, 해양탐사 연구개발이 산업 잠수 1세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잠수부의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느낀 잠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A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세계 어디든 바다가 있는 곳이면 일을 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수와 관련된 레저 활동 및 산업 잠수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바닷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잠수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바다의 매력에 빠져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경미한 공사부터 시작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업 면허를 취득하면 수중공사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공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명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대학교 및 단체에서 잠수 관련 문의와 강의 요청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잠수에 관심을 가지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여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을 때 나의 기술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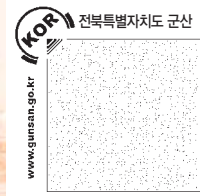
Q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A 전북특별자치도 잠수 명장과 대한민국 잠수 명장이 되어, 새만금에 ‘국제잠수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의 오래된 꿈이자 목표입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잠수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해 잠수 기술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후학양성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군산시
명장을
소개합니다!

군산시 명장이란 우리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군산시 명장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 매년 선정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정된 군산시 명장을 독자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454-4362**



손이 가요, 손이 가~ 꽃새우에 손이 가요~~

군산 꽃새우, 바다에서 온 맛있는 선물

국민 과자 새우깡에 군산 꽃새우가 주원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뽕고족족’한 색깔로 새우깡 맛을 좌우했던 군산 꽃새우는 감칠맛이 뛰어나 각종 요리는 물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꽃새우는 군산, 인천, 태안, 보령, 여수 같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주요 생산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살아야 붙어지는 다른 새우와 달리 원래 붉은빛을 띠고, 불규칙한 세로줄 무늬가 있는 몸에 머리 위로 길게 쪽 뽕은 뽕을 달고 있어요. 군산은 어획량이 연평균 1,200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꽃새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3m에서 150m 깊이의 모래나 진흙 바닥에서 플랑크톤을 먹으며 사는 꽃새우에게 군산 바다는 딱 좋은 환경이지요.

꽃새우 맛, 궁금하지 않나요?

신선한 꽃새우는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어요. 꽃새우회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베어 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머리는 구워 먹거나 튀기면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지고, 몸통은 찌미나 구이, 튀김으로 요리해도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요.

꽃새우 속 영양도 챙기세요!

꽃새우에는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해요. 해독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머리와 몸통 내장에는 키토산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고,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할 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신선한 꽃새우를 고르려면 몸이 투명하고 윤기 나며 껍질이 단단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군산 꽃새우, 이렇게 즐겨보세요!

군산 바다에서 잡아 올린 100% 국내산 꽃새우는 고소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에요. 볶으면 바삭바삭한 맛이 살아나 반찬으로 딱 좋고, 끓는 물에 살짝 우려내면 깊은 국물 맛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군산 꽃새우로 서해 바다의 신선함과 풍미를 만끽하세요!



꽃새우 마늘종 볶음 만드는 방법

재료 준비 꽃새우(건새우) 300g, 마늘종 300g, 간장 2큰술, 꿀 2큰술, 통깨, 참기름 반 큰술

1. 마늘종은 4~5cm 길이로 잘라주고 끝의 꽃대 부분은 버려주세요.
2. 진간장 2큰술, 꿀 2큰술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3. 아주 약한 불에 팬을 올리고 꽃새우를 넣고 새우를 살살 아기 다루듯이 뒤어주세요.
4. 익은 꽃새우에 썰어놓은 마늘종을 넣어주고 살짝 볶은 후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양념장은 다 넣지 말고, 색을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5. 약 1분 정도 약한 불에서 볶아 준 뒤에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6. 불을 끄고 참기름 반 큰 술을 둘러주세요. 통깨까지 넣어서 마무리하면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꽃새우 마늘종 볶음 완성입니다.



저기... 혹시... 그거 아세요?



군산시 학예연구사
나병호

먼저 시원한 바다와 싱그러운 산을 볼 수 있는 계절에 틈을 내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글에서는 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성장했던 군산지역의 고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다와 강을 통해 살아간 군산지역의 근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는 일본의 수탈, 저항, 독립운동 등입니다. 그러나 근대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개개인의 삶처럼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군산 사람을 이롭게 한 ‘군산 객주’입니다.

객주는 숙박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해 주며, 물건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 등을 했던 상인으로 그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신라시대부터 항해술의 발달로 외국 상인과의 교역이 시행되었고, 고려시대 객주의 일종인 여각에 해당하는 경주인(京主人) 또는 원우제(院宇制)가 문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부터 객주가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산 지역은 예로부터 호남의 평야 지대와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이 모이는 장소로 조세로 거둬들인 세곡을 운반하던 군산창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인 강경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객주가 활동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군산 지역은 주요 포구마다 객주가 있었습니다. 군산지역의 객주는 미곡·어염·목면·종이 등을 주로 취급하였으며, 대부분의 물건들은 금강과 바다를 통해 경성, 부산, 인천, 평양, 신의주, 안동, 목포 등으로 운송되었습니다.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의 객주들은 순흥사(順興社), 영흥사(永興社), 어염회사(魚鹽會社), 어상회사(魚商會社), 군산객주조합(群山客主組合), 창성사(昌盛社) 등 상회사들이 군산항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상공인의 증가 및 무역규모 확대 등을 이루었습니다.



객주 생선창고



객주간 상인의 방



행랑채



금전출납부, 복식부기 등



상업거래장부 (1931년)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후 「조선회사령(朝鮮會社令)」, 「객주취체규칙(客主取締規則)」, 「시장규칙(市場規則)」 등을 통해 한국인 객주의 기능을 무력화하였고, 1910년 회사령(會社令)을 통해 객주의 상업행위를 제한하여 1900년경 90여 명이었던 군산지역의 객주가 1910년 중반에는 5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1912년 군산선과 호남선의 개통으로 화물운송의 주요 수단이 금강을 통한 수로에서 철도로 이동하면서 객주의 역할과 수는 감소 되었지만, 웅기, 젓갈, 건어물 등 지역의 생산품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유통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이런 군산의 객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강경포구와 밀접한 상업지대인 군산시 나포면에 위치한 '군산 김준규 주택'입니다. '김준규 주택'은 1920년대 군산에서 객주로 활동한 김호겸이 지은 건축물로 안채, 사랑채, 부속 시설인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객주의 활동을 볼 수 있는 행랑채의 경우 상인과 손님이 머무는 공간, 욕실, 화장실, 마굿간, 곡식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젓갈창고, 생선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하는 물건에 적합하도록 개구부의 규모, 바닥마감 등을 일반가옥과 다르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김준규 주택'에서는 군산과 서포에서 거래를 기록한 상거래장부, 자금관리를 위해 은행 등에 개설한 당좌감전통장, 재물대장 등 80여건의 고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문서는 당시의 경제상황과 근대의 포구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밖에도 객주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설명드리고 싶으나 아직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고 지면의 한계로 이만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군산은 서해문물교류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물류 역사의 많은 비밀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는 언제나 군산다움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 눈부시게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산의 여름밤을 가장 군산답게 즐길 수 있는 공간 Chill* 하게 맥주 한 잔 어때요?

*Chill : 느긋한

금강 따라 흐르는 맥주의 향기
완전히 새로워진 군산 비어포트, 취향을 채우는 공간

군산의 오래된 어판장이 감각적인 수제맥주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금강 물결이 머무는 곳, 과거 '짜보선창'으로 불리던 공간이 이제는 '비어포트'라는 이름으로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맥주의 정거장이 되었지요.

군산 비어포트는 단순한 맥줏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역의 이야기를 품은 수제맥주가 흐르고, 창의적인 맛과 감성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분위기는 더욱 세련되었고, 구성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금강의 바람을 마주하며, 나만의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군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죠.



개성 만점, 4개의 양조장과 맛집



메인쿤브루잉

'Made in Kunsan'의 줄임말로, 군산의 전통과 지역 특산물을 재해석한 독창적인 수제맥주를 선보입니다.

대표맥주 재보선장 라거(군산 보리의 구수한 향을 담은 깔끔한 라거, 4,000원)

운영시간 12:00 ~ 23:00

해적브루잉

자유와 모험을 테마로 한 맥주 제조장으로, 유쾌한 감성과 함께 깊이 있는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맥주 블랙펠(달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씹살한 풍미, 5,000원)

운영시간 (평일) 13:00 ~ 22:00 / (주말) 13:00 ~ 24:00



운룡양조

방향과 고행 속에 깨달음을 쫓는 철학적 감성을 담은 양조장입니다.

대표맥주 시간여행자(정통 체코식 필스너, 4,000원)

운영시간 14:00 ~ 22:00

브레이크타임 16:00~17:00

휴 무 매주 월요일

크라프트 월명

군산의 개성을 담은 보리와 효모를 활용해 프리미엄 크래프트 비어를 경험할 수 있는 브루어리입니다.

대표맥주 웰컴투 군산라거(일반 라거에 비해 약간 묵직한 맛과 진한 갈색이 특징, 6,000원)

운영시간 (평일) 17:00 ~ 22:00 / (주말) 13:00 ~ 22:00

휴무 매주 월, 화, 수



맥주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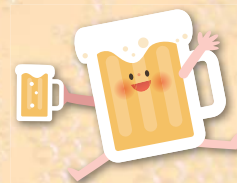
제이제이 (JJ)

맥주로 반죽한 피자과 피쉬앤칩스는 걸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딱 맥주를 위한 안주입니다.

대표맥주 피자, 피쉬앤칩스

운영시간 (평일) 15:00 ~ 24:00 / (주말) 12:00 ~ 24:00

휴 무 매주 월요일



고군산 (GO.GUNSAN)

각종 신선한 야채, 두툽한 패티의 수제버거와 빠삭한 감자튀김을 맛 볼 수 있습니다.

대표맥주 시그니처 수제버거, 바비큐플래터

운영시간 (평일) 15:00 ~ 24:00 / (주말) 12:00~ 24:00

휴무 매주 수요일



군산 비어포트는 단지 맥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지역과 사람이 맥주를 매개로 소통하고 머무르는 특별한 문화공간입니다.
오늘 하루, 금강의 바람을 맞으며 비어포트에서 나만의 '한 잔'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군산의 밤은 맥주와 함께 더 깊어집니다.

썸똥 더위도 걱정없는 군산힐내 여행지!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뜨거운 햇볕과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 체력은 금세 바닥나고 맙니다. 이럴 땐 굳이 땀 흘리며 밖을 헤매기보다, 시원한 실내에서 쾌적하게 여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피약별 아래 지치지 말고, 시원한 실내에서 색다른 여름을 즐겨보세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해양물류 역사관, 근대생활관, 독립영웅관 등 다양한 전시공간이 있어요. 특히 1930년대 군산의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근대생활관은 이색적인 포토 스팟이 가득해요.

- 주 소 : 군산시 해망로 240
- 소요시간 : 약 60분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근대건축관

1923년 지어진 은행 건물로 일본이 식민 지배를 위해 운영한 대표적인 금융 시설이었어요. 현재는 군산의 근대건축물 미니어처와 일제강점기 화폐, 역사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 주 소 : 군산시 해망로 214(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 소요시간 : 약 20분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위봉함

위봉함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함으로, 내부에는 전시실과 3D 영상실, 진포대첩 VR체험존 등이 있어요. 좁은 복도를 걸으며 실제 군함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고 당시 해군들의 함정 생활도 살펴볼 수 있어요.

- 주 소 : 군산시 내항2길 32 (진포해양테마공원)
- 소요시간 : 약 30분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이영춘가옥

1920년대 일본인 구마모토가 지은 별장으로, 해방 후 이영춘 박사가 거주했던 곳이에요.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가며 이곳저곳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건물이 아름다워 모래시계, 야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 촬영지가 되기도 했어요.

- 주 소 : 군산시 동개정길 7
- 소요시간 : 약 20분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운동이 일어난 곳이 군산이란 사실 아시나요?

이곳은 군산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전시관이예요.

- 주 소 : 군산시 영명길29
- 소요시간 : 약 30분 (본관 관람)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금강미래체험관(본관)

금강의 생태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를 관람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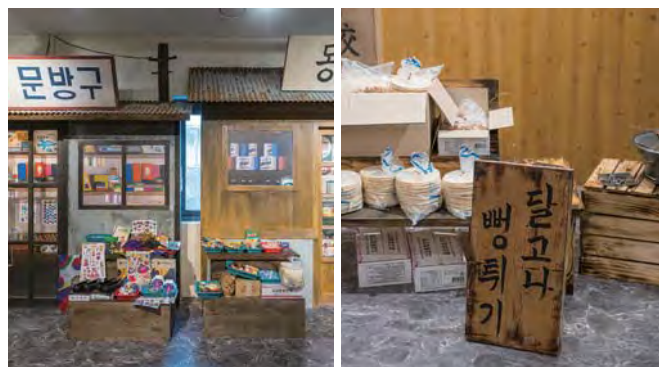
-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 소요시간 : 약 40분 (본관 관람)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요일 휴관)



말랭이마을(추억전시관)

7080 세대의 추억이 깃든 레트로 감성 충전 여행지! 그때 그 시절 삶을 보여주는 골목과 가게, 장터 풍경으로 꾸며져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에요.

- 주 소 : 군산시 절골3길 11
- 소요시간 : 약 20분
- 운영시간 : 10:00 ~ 17:00 (월요일 휴관)



채만식문학관

소설가 채만식 선생의 일대기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필에 몰두했던 모습을 재현한 방 앞에 서면, 채만식 선생이 죽기 두어 달 전에 남긴 편지의 일부를 음성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 주 소 : 군산시 강변로 449
- 소요시간 : 약 20분
- 운영시간 : 09:00 ~ 17:00 (월요일 휴관)



생활정보 톡톡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톡톡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Q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제품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접객업 신고

-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식음료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식음료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Q 키즈카페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정보가 안내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검사 합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

-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함)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YouTube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검색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톡톡속았수다
#군산촬영지
#구시청광장앞도로
#가장오래된중식당



#군산비어포트재개장
#혼맥#낫맥#치맥#피맥
#군산의밤을즐길수있는곳



#투표날듣는가장공포스러운말
#대통령선거
#신분증필수



#군산수제맥주딱좋아
#군산맥주#비어포트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



생활정보 톡톡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리porter 소식

공설시장 북문 앞, 스마트 도서관 건립! 이젠 구도심에서도 즐겨요.

리porter 조아현

문화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군산시는 공설시장 북문 앞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도심 주민과 상인들이 편리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신간과 추천 도서 중심으로 500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회원증(모바일 포함)만 있으면 누구나 1인당 최대 3권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도서 검색은 군산시립도서관 스마트도서관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반납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해야 하나, 반드시 빌린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스마트도서관 개관을 통해 시장 상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서와 더 가까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 어렵지 않아요! 2025 군산 과학축전 현장을 다녀와서

리porter 이선옥

2025년 6월 7일, 과학이 더 이상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하루가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2025 군산 과학축전'은 유치부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48개의 부스를 통해 풍성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각 부스에는 체험 난이도가 팸플릿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미취학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청소년 봉사자들이 부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또래 참가자들에게 과학 원리를 설명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지층 모양의 샌드위치를 만들고 단면을 보여주며 맨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그들의 성숙한 자세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며 과학의 흥미를 나눌 수 있었던 이 축전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소통과 배움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열려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우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군산樂과 함께 즐겨요!' 토요일상설공연 개막

리porter 고덕자

(사)한국예총 군산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산 樂과 함께 즐겨요~'라는 주제로 토요일상설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토요일상설공연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군산에 머무르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은파 호수공원 내 물빛다리 광장에서 올해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6월 7일 개막 공연에서는 국악, 무용, 합창, 대중가요 등 (사)한국예총 군산지회 5개 지부에서 8개 팀이 참여해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 토요일상설공연은 6월 7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3일과 10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자랑스러운 군산의 역사,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다녀와서

어린이리porter 박하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1층과 2층에는 3.1운동의 배경과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조형물 등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층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만세운동 당시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기념관 외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금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군산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3.1만세운동이 시작된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금강을 바라보며 군산의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월의 특별한 경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며

어린이리porter 송서연

6월에는 현충일도 있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치러져 아주 뜻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열린 선거라서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그리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관련 공약으로는 근대문화 비엔날레 유치지원, 재생에너지 박물관 설립,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극복할 시원한 책 한 권!

유아



고양만두

상자(글), 박소영(그림) | 노는날 | 2025
느린 고양이 냥냥이의 직업 찾기 대작전!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냥냥이의 이야기.

무례한 친구가 생겼어요

크리스티나 퍼니발(글), 케이티 드와이어(그림)
리틀포레스트 | 2024
“친하다는 말이 함부로 대해서도 된다는 뜻은
아니아!”
건강한 우정을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초등저학년



꿀꺽 소파 대소동

보람 | 길벗어린이 | 2025
물건들이 자꾸자꾸 사라진다고? 흑시.. 소파
밑에 유령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 벌여
지는 우당탕탕 하루!



쓰저씨와 와글와글 친구들

김석훈(글) | 간쟁(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25
‘쓰레기 줍는 아저씨’ 배우 김석훈의 환경동화.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신 있는 소비, 나와
지구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어린이가 실생활
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실천법까지!

청소년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꽃님 | 문학동네 | 2022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폭력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운,
타이밍, 행운의 여신 혹은 운명의 장난이라
불리는 존재가 들려준다.

성인



호랑골동품점

범유진 | 한겨레출판 | 2025
“호랑골동품점에 잠들어 있다가 밤이 되면 깨어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한(恨)이 깃든 물건을 보관하고 정화하는 귀신
들린 가게, 호랑골동품점의 문이 열린다!

나는 숲속 도서관의 사서입니다

아오키 미야코 | 어크로스 | 2025
일과 인간관계, 도시생활에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산골마을로 이주해 사설 도서관 ‘루치
리브로’를 열게 된 전직 대학 도서관 사서가
써내려간 책과 삶의 기록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학 토크톡(part 5.)

눈에 띄는 인문학 : 미학의 세계를 탐구하다

- 일시 : 7. 1. ~ 7. 15.(매주 화), 19:00~21:00 / 총3회차
 - 장소 :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및 교양문화실
 - 대상 : 중학생 이상 성인(30명)
 - 강사 : 민병헌 사진작가, 이주봉 군산대 교수
 - 운영내용
- [1회차]
7. 1.(화), 19:00~ / 새만금드림홀(100명)
- 사진작가 민병헌의 작품세계 “회색빛 너머의 사색”
- [2·3회차]
7. 8.(화)~7. 15.(화), 19:00~ / 교양문화실(30명)
- 이주봉 군산대 교수 “영화의 현실재현과 디지털 영화
에서의 사실주의 문제”
- 신청방법 : 시립도서관 누리집 선착순 모집
 - 신청문의 : 시립도서관 ☎ 063-454-5630)



그림책과 함께 기다리며 준비하는
북스타트 아기마중 임산부 교육

주제	일시	인원	장소
1강 들려주세요	7. 5.(토) 10:00~12:00	20명	2층 다목적강당
2강 만져주세요	7. 12.(토) 10:00~12:00		
3강 놀아주세요	7. 19.(토) 10:00~12:00		

※ 강연 첫날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산모수첩, 임신증명서)

※ 부모교육 참석자에게는 북스타트 아기마중 책꾸러미 배부

■ 신청방법 : 시립도서관 누리집 선착순 모집

■ 신청문의 : 늘푸른도서관 ☎ 063-454-5983)

“지금 우리 동네는”

옥구읍,

동마산 마을의 ‘환경지킴이’이장님 이야기

옥구읍 동마산마을 진재신 이장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비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편백나무 등을 심으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마을 방송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수거장에 모인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등 마을 환경 정화 활동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개정면,

매월 정성 가득 “찾아가는 밑반찬 서비스” 실시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갑봉)는 6월 12일부터 매월 1회 ‘밑반찬 정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15세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매월 가정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개정동,

어르신 건강지키는 무더위 쉼터 점검 완료

개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관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냉장고와 냉방기기 작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으며,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나운3동,

음식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복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소영, 민간위원장 임진희)는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의 날, 공유냉장고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공유냉장고 설치 장소 중 하나인 군산중앙신협에서 진행됐으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독거노인들이 원하는 식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이 영웅 루트비히 판 베토벤: 불멸의 거장과 그의 혁신적인 교향곡 3번 '영웅'

군산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명근



지난 6월 정기연주회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Eroica)'을 연주했습니다. 리허설과 공연,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웅은 거창한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BBC 뮤직 선정 가장 위대한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영국 BBC는 세계적 지휘자 151명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혁신적인 구성과 깊은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상징하는 걸작입니다.

베토벤의 작품 전반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이성과 개인의 자유, 평등, 인류애를 중시했던 그는 음악을 통해 그 철학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는 인류애를 찬양한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오페라는 『피델리오』 단 한 편만을 작곡했는데요. 당시에 오페라가 귀족들이나 왕가의 유희나 찬양을 위해 쓰이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철학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영웅'의 원래 곡명은 '보나파르트'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했던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매우 존경했고, 그를 위해 '보나파르트라는 영웅의 교향곡'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르자 실망한 베토벤은 헌사를 찢어버리고, '보나파르트'를 지워버립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의 고집과 신념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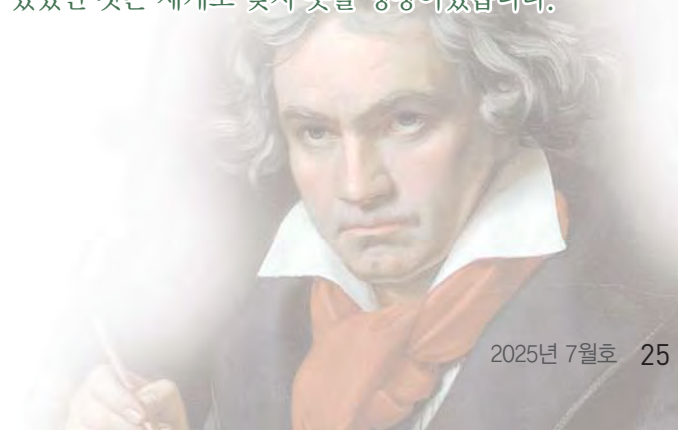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던 시기에 쓰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음악적 실험을 멈추지 않았고, '운명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처럼 불운과 맞서 싸우며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악장별로 살펴보는 '영웅'의 여정

총 4악장으로 구성된 이 교향곡은 탄생과 투쟁, 죽음과 애도, 그리고 삶의 유희와 승화를 담아냅니다. 특히 호른 세대나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영웅적인 인상을 부여합니다. 초연 당시에는 낮은 구성과 긴 연주 시간 때문에 반응이 냉담하였지만, 베토벤은 단 한 부분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곡에는 그의 열정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1악장은 두 개의 힘찬 E♭ 장조 코드로 문을 열어 곧장 주제에 들어섭니다. 2악장은 '장송 행진곡'으로, 마치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3악장은 스케르초 형식으로 구성되어, 리듬의 유희와 강약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베토벤 특유의 해학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4악장에서는 이전에 작곡한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주제를 변주하여, 그만의 독창적 음악 언어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악장에는 베토벤이 쌓아온 기법과 내면의 삶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지휘하며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역사 속 이름이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 같은 시민 여러분 앞에서 이 위대한 음악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잊지 못할 영광이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국민건강보험 군산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받아 건강보험 업무를 체험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체험은 공공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시민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고,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을 고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김우민 의장과 제9대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며,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군산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제274회 임시회 폐회중 군산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소개합니다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

김경구 의원과 이한세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며 관세 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의 기반 붕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정부는 지체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 정부는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김경구 의원



이한세 의원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 주요 소식 2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주요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도시재생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신동과 소룡동의 도시재생사업 주요현장을 돌아보며 사업추진현황을 살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해산물 가공센터, 혁신성장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소룡동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역시 어울림 센터와 순환형 주택 등이 올해 안에 완공될 계획이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기존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회 주요 소식 3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방재시설 점검 및 침수 예방 대책 논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집중호우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방재시설 및 우수배제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군산시청 5층에 위치한 방재시설관제실을 방문하여 관내 14개소 펌프장, 저류조, 갑문, 우수지 등 우수배제시설의 상시 모니터링 및 원격관제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이 어려운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해 유동적인 수문 개방 등 상황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도심 내 침수 발생 시에는 신속한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적극적

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나운동 구)보건소사거리 주변의 우수를 경포천으로 배수하는 압송관로가 병행 설치된 나운1우수저류조와, 월명동 및 영화동 일원의 우수를 강제 배수하는 내항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운전 점검과 정비 등 체계적인 방재 운영을 통한 침수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상습 침수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우기철 이전에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다수의 집중호우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시의
주요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달성률 도내 1위·종합 2위

군산시는 2025년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지표 69개 중 66개를 달성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달성도 1위를 차지했고,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하반기 정성지표 우수 시군 평가 시부 1위를 차지,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루어냈다.

☎ 기획예산과 454-2703



(주)DS단석, 군산에 1조 900억 원 투자

2031년까지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군산시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주)DS단석은 제1·2공장에 이어 제3공장 건설을 위해 1조 9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DS단석은 오는 2031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231,880㎡(약 7만 평) 부지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수첨식물성오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항공유 등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군산에 들어설 신공장은 (주)DS단석의 미래 전략이 집약된 'Net-Zero 복합단지'로 조성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지원과 454-2733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포럼 개최

안전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포럼을 6월 13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 주체의 요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포럼은 군산시가 주관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했으며, 군산시·재난 안전 전문가·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시는 새만금 관할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재난관리 체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정책담당관 454-2195



생활 속 불편, 불합리 찾는다.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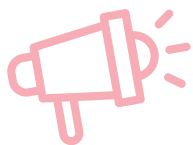
32건 규제 개선과제 논의, 시민 체감형 혁신방안 모색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기획예산과 454-2332



INFO BOX

군산시민에게
유익한정보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 무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청방법** (방 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rtms.molit.go.kr>
-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2만원 ~ 30만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토지정보과 454-4082

2025년 「저소득가정 여름나기 캠페인」 안내

- 사업기간** 2025. 6월 ~ 8월 (3개월 간)
- 사업내용** 기업, 단체, 민간과 연계한 계절용품 지원
- 지원대상**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 지원품목** 선풍기, 여름이불, 영양식 등 여름나기 용품
☎ 복지정책과 454-3082

2025년 농업기계 임대장비 불용물품 공개매각 안내

- 대상기종** 감자파종기, 콩 탈곡기 등 17종 23대
- 공고기간** 2025. 6. 9.(월) ~ 7. 11.(금)
- 입찰기간** 2025. 7. 15.(화) 09:00~18:00
2025. 7. 16.(수) 09:00~16:00(입찰마감 시간)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사무실
(개정면 운회길 32)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매입신청서 현장배부
- 개찰일시** 2025. 7. 16.(수) 16:30
- 개찰장소**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1층 강당
(개정면 운회길 32)
- 참여자격**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농촌지원과 454-5903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2학기 개강 안내

- 교육기간** 2025. 6. 1.(월) ~ 8.24.(일)
- 교육장소**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군산시 분말3길 23)
- 교육시간** 매주 일요일 09:00 ~ 18:00(8시간)
- 참여대상** 합법 체류 외국인 및 3년 미만 귀화자
- 교육인원** 45명(1단계 25명, 2단계 20명)
-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1단계 ~ 2단계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 회원가입후 교육신청
☎ 인구대응담당관 454-2632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이야기 「우리들의 군산」

- 일시** 2025. 7. 11.(금) 13:30 ~ 17:00
* 세계 인구의날 기념(7.11.)
- 장소**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지하1층)
- 참석인원** 군산시민 70여 명
- 발제자** 이상림 박사
(現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인구정책 세미나 및 시민토론회
☎ 인구대응담당관 454-2323

여권민원 야간창구 운영 안내

- 운영일시** 매주 목요일 18:00 ~ 21:00
(법정 공휴일 제외)
- 장소** 열린민원과 민원실(1층) 여권 창구
- 운영업무** 여권 발급 신청 및 교부
☎ 열린민원과 454-2542

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안내

- 적용대상** 군산사랑상품권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전 종류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지류형) 상품권 뒷면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5년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충전일자로부터 5년
- 유의사항** 1.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 및 환불, 재발행
불가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상품
권은 군산시로 귀속됨
2. 가맹점은 지류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만 환전 신청 가능하므로
지류상품권 수취 시 반드시 발행일자를
확인
☎ 일자리경제과 454-2663

2025년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운영안내

- [군산 야외수영장]**
- 운영기간** 2025. 7. 4. ~ 8. 24.(52일간)
매주 월요일 휴장
- 운영시간** 10시 ~ 18시
브레이크타임 : 13~14시 수질관리 및
환경정비(풀장 입수 금지)
- 이용요금**
- | 구 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
| 군산시민 | 3,000원 | 4,000원 | 5,000원 |
| 기타지역 | 4,000원 | 5,000원 | 6,000원 |
- ※ 24개월 미만 무료

[어린이공연장 물놀이장]

- 운영기간** 2025. 7. 25. ~ 8. 24.(31일간)
매주 월요일 휴장
- 운영시간** 10시 ~ 17시
브레이크타임 : 13~14시 수질관리 및
환경정비(풀장 입수 금지)
- 이용요금** 무료
☎ 체육진흥과 454-5597



01 뮤지컬 「라흐레스트」

일 시 2025. 7. 5.(토) 15:00, 19: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입 장 료 전석 2만원 (6/30일까지 예매 시 20% 할인)
예 매 처 티켓링크 누리집(<https://www.ticketlink.co.kr>)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02 창작가무극 「천개의 파랑」

일 시 2025. 7. 12.(토) 15: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입 장 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 매 처 티켓링크 누리집(<https://www.ticketlink.co.kr>)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03 2025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

일 시 2025. 7. 12.(토)
장 소 군산월명체육관
게임종목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팀파이트택틱스(롤토체스)
사전접수 (모바일) 2025. 5. 12. ~ 7. 10.(목) 온라인 접수
부대행사 보드게임, 아케이드게임, 친환경 나무놀이터 등 운영
 ☎ 문화예술과 454-3272

04 어린이뮤지컬 「알사탕」

일 시 2025. 7. 26.(토) ~ 27.(일) / 11시, 14시, 16시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입 장 료 동등이석 2만원, 구슬이석 1만원
 (군산시민 다자녀 30%, 7/18까지 예매 시 20% 할인)
예 매 처 티켓링크 누리집(<https://www.ticketlink.co.kr>)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05 백남준 판화전

기 간 2025. 7. 18.(금) ~ 8. 30.(토) ※휴관: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 10:00 ~ 17:0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
관람연령 전 연령 관람가
입 장 료 무료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06 시립교향악단 제78회 기획연주회 「남량특집 콘서트」

일 시 2025. 8. 21.(목) 19:30
장 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입 장 료 전석 5,000원 *감면기준은 조례에 근거
예 매 처 티켓링크 누리집(<https://www.ticketlink.co.kr>)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6

07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천리千里따라 구비구비」

일 시 2025. 4. 15.(화) ~ 10. 12.(일)
장 소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내 용 사람의 일생과 함께한 구비문학(민요) 전시
입 장 료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박물관관리과 454-7870



08 근대역사박물관 역사강좌 「삶과 민속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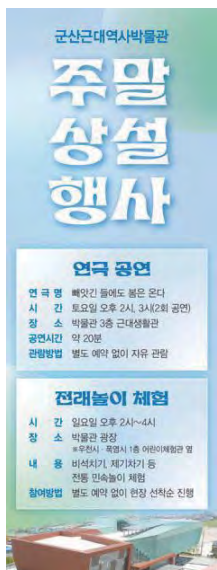
일 시 2025. 6. 19.(목) ~ 11. 20.(목)/ 14:00 ~ 17:00
장 소 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2층)
대 상 성인 30명(회당)
접 수 전화접수(선착순 마감)
 ☎ 박물관관리과 454-7876

09 근대역사박물관 주말상설행사 안내

일 시 2025. 6. 7.(토) ~ 10. 26.(일)
장 소 근대생활관(박물관 3층) 및 근대역사박물관 광장

구분	일시	장소	참여자	내용
연극	토요일(월3회) 14:00 15:00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	8명	일제 강점기 고단한 삶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곳곳하게 독립의 길을 찾아가는 소작농 가족 이야기
전래놀이	일요일(월3회) 14:00~16:00	박물관 광장 (우천·폭염시 어린이체험관)	4명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 박물관관리과 454-7870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유산
야행

주최 군산시

후원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2025
군산국가유산
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2025.8.22(금)~8.23(토) / 2025.8.29(금)~8.30(토)

18:00~22:00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